

백두대간 속으로

< 27 >

흔탁한 물이라 할지라도 얼음으로 바뀌면, 그 피부만큼은 하얗게 빛나며 물의 본성을 되살려 낸다. 겨울 찬바람이, 순수한 물알갱이만을 떨어올리는 까닭이다. 흔하들 겨울은 추워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속내는 여럿이리라. 외투나 난로 같은 것들이 잘 풀려서 돈이 잘 돌기를 바라는 셈속도 있었고, 냉랭한 공기에 온몸을 내맡기고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고자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더러는, 텅 빈 들녘의 '아무 근심 없음'에 마음을 포갠다가, 어느 별 좋은 봄날 아

침, '아, 참 잘 됐다' 하고 기기개를 켤 수 있을 때까지 긴 겨울잠에 빠지고 싶기도 할테고. 하지만 오늘의 우리는 온전히 겨울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 네모난 공간에 스스로를 유배시킨 채 달력 장이나 낫으며 계절을 넘기는 것이다. 좀더 벗어날다. 땅구멍으로 솟아나는 온기가 얼음의 결정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한겨울을 따뜻한 방 안에서 자낸 동백은 봄이 와도 꽃을 피울 수 없는 법이다.

백두의 정기품은 겨울 함백의 장대함

함백산 → 매봉산 → 피재

사 람 그 모습대로 좋지 않은 산이 있을까만, 함백(1572.9m)이아말로 겨울에 비로소 그 이름에 값한다. 물두더기를 쌓아올린 듯한 바위로 이루어진 정상은 어차피 사할 변함없는 모습이지만, 사방에 거칠 것 없이 솟아오른 장대한 모습은 겨울에 더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이다. 만약 <산경표>의 태백산 바로 위에 적힌 '대박산(大朴山)'이 함백산을 가리키는 게 맞다면, 그야말로 '크고 밝은 산'이라는 뜻에 딱 어울리는 별명이다. 남으로 길게 누운 태백산과 북으로 매봉, 두타 청옥으로 이어지는 험한 기운이 그대로 전해온다. 백두대간이 내뿜으로 몸을 돌면서 붉은 힘을 준 근육이 바로 함백산 임기 불림었다.

니 묘법산(妙法山)으로 가서 정암사를 세웠다. 여기서 우리는 함백산의 또다른 이름을 발견한다. 묘법산, 수미산을 일컫는 것으로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은 이름이다. 우리 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정암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율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셨다는 내력을 지닌 수마노탑(보물 제410호)을 등에 지고 오늘날도 여여부동한 자세로 부처의 혜명을 잇고 있다. 은대봉에서 급하게 허리를 낮추는 백두대간은 맞은편 봉우라인 금대봉을 오르기 전에 씨리재(1268m)라는 고개 하나를 열여 준다. 길이 산을 넘으니 고개는 분명 고개이지만, 높이로만 본다면 험한 산을 훌쩍 넘는다는. 고한과 태백을 연결하는 38



◇매봉산에서 바라본 함백산. 붉은 선으로 흘러내리는 산줄과 장대한 형세는 백두대간의 기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중함백 서쪽 계곡엔 적멸보궁 정암사 고한읍 카지노 열풍 박탈감만 안기고

고 내려면 철조망으로 둘러쳐진 주옥군락을 끼고 중함백(1506m)으로 오르는 길이 나타난다. 함백산 자락이 만나 실을 정도로 평탄한 길이 한참 계속되다 불속 솟으면 중함백이다. 중함백에서 은대봉(1142.3m, 삼함백) 오르는 길도 사정은 비슷한다. 근대군데 때때로 고운 자작나무들이 '나 여기 있소' 하며 눈길을 끈다. 과연 '자작'이라는 호칭을 얻을 법한 자태다. 그러나 마냥 자작과 같동무할 수는 없다. 삼함백 또한 약속이나 한듯이 갑자기 시야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태백산 정암사'로 부르는 정암사도 실제로는 중함백 서쪽 계곡의 끝자락이 고한읍에서 만항재로 오르는 414번 지방도와 만나는 곳에 있다. <삼국유사>의 탑상편에 전하는 창건 내력 한 토막을 보자. '자장법사는 처음에 은대산에 이르러 문수보살의 진신을 보고 산 기슭에 떠들썩하고 싶었다. 이에 동안이나 보이지 않더

번 국도 위의 고개로서, 백두대간을 넘는 포장길로는 으뜸가는 높이를 자랑했으나 요즘은 아래로 굽이 흘러는 바람에 인적이 뜸하다. 씨리재는 달리 '두문동재'라고도 불린다. 고개 서쪽의 두문동에서 파은 이름이다. 석탄 산업의 쇠퇴를 증명이라도 하듯 주인 잃는 집들이 대부분인 이 동네는, 아주 오랜 전부터 가슴저린 역사를 속앓이 하면서 세월의 겨울을 쌓아왔다. 이른바 '두문동'의 내력이 바로 그것이다. 본디 두문동은 북쪽 땅 개동군 공역산 서쪽 끝자락의 옛 지명으로, 두문동 침식 이형으로 불리는 임선미, 성사계, 조의생 등 72명의 고려 유신들이 조선에 반대하여 벼슬을 버리고 은거한 곳이다. 또 다른 얘기로는 72명의 문신은 서두문동으로 숨어 들었고, 48명의 무신은 동두문 동으로 몸을 감췄는데, 이들 모두가 조선 태조의 갖은 회유에도 불구하고 문밖을 나가지 않았다 한다.

이로써 '두문동'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 것인데, 이야기는 이쯤에서 끝나지 않고 참극으로 이어진다. 인내의 한계에 다다른 태조는 끝내 이곳에 불을 질렀고 가까스로 살아난 몇몇이 고한 땅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도, 이들 또한 '두문동' 했음은 물론이다. **한** 데 요즘들어 고한읍에 불고 있는 '카지노'의 열풍은,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현자에게는 상대적 박탈감만 안기고 돈 잃고 패기망신한 사람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있다. 21세기형 두문동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지난 얘기는 여기서 잡고, 다시 대간 길을 잇자. 씨리재에서 백두대간은 금대봉(1418.1m)을 오른다. 금대산으로도 불리는

이곳 북쪽 계곡은 한강 발원지로 확인된 검룡소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근래의 계곡 결과 이곳에서 한강 하구까지의 직선 거리는 497.5km로 확인되었다. 금대봉에서 한두 시간 거리의 비단봉을 지나니 날이 저문다. 온통 고랭지 채소밭인 기슭을 한 시간 가까이 헤맨 끝에 매봉산(1303.1m)에 오른다. 철쭉 같은 어둠을 뚫고, 멀리 동해 바다의 고깃배들이 환한 불빛으로 인사를 건넨다. 이곳에서부터 백두대간은, 자기 부신의 물문대에 이르는—그동안 우리가 태백산맥으로 잘못 불려온—낙동정맥을 가지치고는 오른쪽으로 동해를 끼고 곧장 북쪽으로 백두산을 향해 줄달음칠 것이다. 글=윤재학 기자 사진=손재식(사진작가)



◇상서로운 기운이 감도는 열린 구름으로 덮인 태백시. 매봉산에서 본 모습이다. 이 산에서는 동해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불자와 함께 네트워크 불교세상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이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른 따근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무선인터넷 불교정보서비스
● 불교정보 접속방법 안내
011 SK Telecom
6. 여성/문화 ⇨ 9. 종교 ⇨ 불교정보
016 한통프리텔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019 LG Telecom
5. 인터넷채널 ⇨ 7. 종교 ⇨ 불교정보
017 신세기통신
InfoTouch ⇨ 종교 ⇨ 불교정보
018 한통엠티넷
정보여행 ⇨ 생활문화 ⇨ 건강 ⇨ 불교정보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집 근처의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
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

산사의 불교가 내손안으로!
이제 모바일에서도 법문을 듣고
불교문화를 감상하며 스님을 만나거나
산도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불교정보 서비스는 총 7개의 주제속에
정리된 30여 메뉴를 통해 사찰정보,
불교인물 검색등 D/B검색과
매일매일의 불교뉴스, 공연, 전시,
법회안내 등을 검색할 수 있다.